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네 개의 묵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묵시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니다.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인데 뒷발로 서 있고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아주 탐욕스러운 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등에는 새 날개가 4개가 있고 또한 머리가 또 넷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앞에 짐승들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매우 사납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빨과 발톱으로 무엇이든지 으스러뜨리고 나머지 짐승들도 발로 짓밟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게다가 뿔이 10개나 있습니다. 게다가 8절에 보니까 그 열 뿔 중에서 열한 번째 작은 뿔이 튀어나오는데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그것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17절)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의 출현을 하나님이 알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왕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시대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고 다시 옷이 재림 이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을 단지 로마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 왕들 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9절에서 다니엘이 '내가 보니'라는 말은 계속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짐승들이 순서를 따라 출현하는 장면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네 짐승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고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며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2/17(월)	2/18(화)	2/19(수)	2/20(목)	2/21(금)	2/22(토)	2/23(주일)
레 19-21	레 22-23	레 24-26	레 27, 민 1	민 2-4	민 5-7	민 8-10

QT

이번 주 QT 말씀

2/17(월)	2/18(화)	2/19(수)	2/20(목)	2/21(금)	2/22(토)	2/23(주일)
요 13:12-20	요 13:21-30	요 13:31-38	요 14:1-14	요 14:15-24	요 14:25-31	요 15:1-8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은 나누어 주세요.

3.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하나님의 나라,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